

본처의 관점에서 본 한국 근대 서사

전 봉 관*

요약

한국 근대 소설에서는 조혼한 기혼 남성이 주도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서사가 적지 않다. 서사에 등장하는 조혼한 기혼 남성들은 흔히 아내 아닌 다른 여성과 이상적 사랑을 추구하는데, 이러한 인물 유형은 한국 근대 소설의 주요한 서사적 특징이라 할 만하다. 한국 근대 서사에서 조혼한 기혼 남성은 아내 아닌 다른 여성과 사랑을 추구하면서도 아내에게 죄의식을 느끼거나 스스로 나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그 행위의 법적 윤리적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심지어는 그것이 봉건적 인습을 타파하기 위한 진보적이고 바람직한 행위라고 항변하기도 한다.

그에 반해 조혼한 기혼 남성의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로서 서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서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드물고, 서사의 표면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조혼한 기혼 남성이 다른 여성을 사랑하는 것이 법적, 윤리적으로 정당한가의 판단에서 아내의 처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 근대 서사에서 조혼한 아내는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다.

본 논문은 염상섭의 『만세전』, 『삼대』, 이기영의 『고향』, 채만식의 『파도기』 등의 서사 구조를 본처의 관점에서 다시 읽음으로써 일제강점기 한국 근대 소설에서 조혼한 구여성 본처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자유연애에 관한 연구들은 한국 사회에 자유연애가 이식되는 과정을 전통적 가치들과 근대적·서구적 가치의 충돌과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주로 설명해 왔다. 하지만 구여성 본처와 같은 소외된 존재에 주목하면, 한국 근

* 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대의 자유연애는 지향해야 할 근대적인 문화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남성 중심주의와 봉건적 폭력성을 함축하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주제어: 조혼, 구여성, 본처, 염상섭, 이기영, 채만식, 『만세전』, 『삼대』, 『고향』, 『과도기』

목차

1. 서론: 한국 근대 서사와 본처
2. 한국 근대 서사의 투명인간
3. 이상적 사랑이란 이름의 외도
4. 이혼, 혹은 ‘아내 죽이기’ 대 아내의 출산
5. 결론: 자유연애의 은폐된 폭력성

1. 서론: 한국 근대 서사와 본처

일제강점기 한국 근대 소설에서 조혼한 기혼 남성이 주도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서사가 적지 않다. 염상섭 『만세전』의 이인화, 『삼대』의 조덕기, 이기영 『고향』의 김희준 등이 그러한 범주에 속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이러한 인물 유형은 조혼이라는 전근대적 인습과 자유연애라는 근대적 문화가 공존한 시기 창작된 한국 근대 소설의 주요한 서사적 특징이라 할 만하다.¹⁾ 소설에 등장하는 기혼 남성들은 흔히 10대 초반의 나이에 부모의 강요로 그들보다 나이도 많고, 근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구여성과 결혼하는데, 그러한

1) 그 자신이 조혼의 피해자이기도 했던 이기영은 초기 소설 전반에서 조혼한 남성을 주도적인 인물로 내세워 억압적 결혼 제도에 대한 저항과 자유연애에 대한 동경을 표현했다. 이채원, 『젠더정치학의 관점에서 본 이기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8호, 2013, 32-40면.

전근대적 인습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아내를 고향집에 방치한 채 서 울이나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교육받은 신여성과 이상적 사랑, 즉 자유연애를 추구한다.²⁾ 반면 여학교는 교칙으로 여학생의 결혼을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조혼한 기혼 남성의 애인은 대체로 미혼의 신여성들이었다. 따라서 한국 근대 소설에서 조혼한 기혼 남성과 미혼의 신여성 사이의 자유연애는 기혼 남성의 구여성 본처까지 본질적으로 삼각관계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유연애를 주제로 한 한국 근대 소설 연구에서 구여성 본처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³⁾

조혼한 구여성 본처가 등장하는 한국 근대 소설은 그들이 주도적 인물로 등장하는 서사와 보조적인 인물로 설정되는 서사 등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조혼한 구여성 본처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은 심훈 『직녀성』, 강경애 『어머니와 딸』, 전영택 『혜선의 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서사에서는 남편의 이혼 요구가 공통된 갈등 요인으로 등장하는데, 『직녀성』의 이인숙과 『어머니와 딸』의 옥이는 남편의 이혼 요구를 고심 끝에 받아들이고 자립의 길을 걷는 반면, 『혜선의 사』의 혜선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택한다. 이인숙과 옥이의 선택이 바람직한 방향이었지만, 그들은 서사의 시작 지점에서는 구여성이었으나, 불우한 결혼 생활 속에서도 신학문을 공부해 자립할 능력을 쌓았기 때문에 서사의 결말 지점에서는 구여성

- 2) 조혼과 강제결혼을 부정하고 자유연애 결혼을 통해 새로운 부부 관계를 수립하고자 했던 지식인 남성들은 구여성 본처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구여성 본처들은 이렇듯 강요된 이혼에 저항해 '자유이혼' 문제는 1920~30년대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소현숙, 『강요된 '자유이혼', 식민지 시기 이혼 문제와 '구여성』, 『사학연구』 제104호, 2011.
- 3) 구여성 본처의 처지에 주목한 연구는 이광수의 자유연애와 이상적 가정에 관한 논의가 구여성 본처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했음을 간파한 이행미의 논문이 대표적이다. 이행미, 『이광수의 『재생』에 나타난 식민지 가족법의 모순과 이상적 가정의 모색』,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0호, 2016.

의 한계를 극복한 신여성의 면모를 보였다.⁴⁾ 당당히 이혼을 받아들이고 자립의 길을 걷는 이인숙과 옥이의 선택이 ‘구여성다운’ 선택이라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칠거지악, 삼종지도의 봉건적 윤리를 따르고, 시집살이의 고통을 견뎌야 했던 구여성 본처들은 본질적으로 수동적이고 자립 능력이 결여될 수밖에 없었다. 남편의 이혼 요구에 구여성 본처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해선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운명 앞에 무기력하게 몸을 내맡기는 것 외에 뾰족한 대안이 있을 수 없었다. 역설적으로 구여성 본처가 서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면 그녀는 더 이상 구여성일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두 번째 유형인 조혼한 구여성 본처가 남편의 자유연애를 가로막는 수동적인 장애물로 설정된 서사이다. 염상섭의 『만세전』, 『삼대』, 『무화과』, 이기영의 『고향』, 채만식의 『과도기』, 이광수의 『소년의 비애』, 『어린 벗에게』 등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서사에서 구여성 본처는 남편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로서 서사에서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지만, 정작 서사의 표면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본 연구가 투명 인간처럼 서사에 존재는 하지만, 서사의 표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조혼한 구여성 본처라는 인물 유형에 주목한 이유는 그들이 주도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서사에 비해 한국 근대 사회에서 조혼한 구여성 본처의 처지와 실상을 훨씬 잘 대변해주기 때문이다.

4) 이상경은 인숙이 이혼을 결심하고 여성으로서 자각하는 과정을 “신여성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이라 설명한다. 이상경, 『근대소설과 구여성: 심혼의 직녀성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19호, 2001, 195면.

2. 한국 근대 서사의 투명인간

염상섭의 『만세전』(1922)은 “조선에 만세가 일어나던 전해 겨울”, 도쿄 유학생 이인화가 학기말 시험을 반쯤 치르던 중 “그해 가을부터 해산 후더침으로 시름시름 앓던” 그의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서울 집으로 돌아갔다가 아내의 임종을 지키고, 초상을 치른 후 도쿄로 귀환하기까지의 과정을 다룬 소설이다. 서사의 시작과 끝에 ‘아내의 위독’과 ‘아내의 초상’이 각각 위치하고 있지만, ‘아내’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서사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없다. ‘아내의 죽음’은 서사에서 핵심적인 사건이지만, ‘아내’ 자체는 서사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만세전』의 서사는 이인화의 눈에 비친 3·1 만세 운동 직전 조선의 현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도쿄에서 고베, 시모노세키, 부산, 김천을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긴 여로에서 이인화는 조선인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혐의 없이 거듭 검문, 감시, 미행을 당하고, 조선인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일본 민간인들과 관헌들을 목도하며, 조선인임이 부끄러워지고, 혹은 조선인임을 부끄러워하는 일련의 군상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한 군상들 중에는 보통학교 훈도이면서 재산 증식에만 열을 올리고, 아들을 낳겠다는 명분으로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던 청주 최참봉의 둘째딸을 첩으로 얻은 ‘형님’, 노름에 빠져 문중 소유의 선산 문서를 위조해 혈값에 팔아넘긴 ‘셋째 집 종형’, 김의관의 땀에 빠져 동우회 평의원 자리를 얻으려 밤낮으로 집을 비우는 ‘아버지’ 등 가족과 피붙이들이 빠지지 않는다.

『만세전』의 서사는 이렇듯 조선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일련의 에피소드들 사이에 사랑과 성, 가족에 관한 이인화의 인식을 보여주는 다양한 ‘여성들’이 차례로 등장한다. 아내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학기말 시험까지 미루고 도쿄를 떠나면서 이인화는 일본인 여급 ‘정

자'를 만나기 위해 'M현'을 찾는다. 'M현'을 방문할 때마다 이인화는 '정자', 'P자'와 술을 마셨고, 그날도 두 여급 모두와 농지거리를 나눴다.

아내가 위독해 귀국하는 길에 카페에서 일본 여급 두 명과 어울려 술을 마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사연을 들은 'P자'가 "사내는 다 저래! 저런 남편을 믿고 어떻게 사누?"라 탄식할 정도였다. 이에 대해 이인화는 "사람에게는 사랑할 자유도 있거니와 사랑을 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부부간이라고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을까." "목숨 하나가 없어진다는 것과, 내가 술 먹는다는 것과는 별개 문제다." "내 처가 죽어가는데 술을 먹다니? 하는 소위 양심이 머리를 들지만, 그것이 진정한 양심이 아니라, 관념이란 악마가 목을 매서 끄는 것이다. 사람은 그릇된 관념의 노예다."⁵⁾ 라는 사랑에 관한 괴변에 가까운 자신의 견해를 늘어놓는다. 그는 심지어 '정자'가 보는 앞에서 'P자'를 껴안고 키스를 시도하기도 한다.

시모노세키로 가는 기차에서 완행차편이 지루하다며 즉흥적으로 고베에서 내린 이인화는 C음악학교에 다니는 '을나'를 찾아간다. '을나'의 하숙에 가기 전에는 "작년 초여름 일을 생각하고" A카페를 찾아 그때 만난 여급의 소식을 묻는다. 그 여급은 "폭발탄 정사(情死)"로 이미 세상을 떠난 이후였다. '을나'는 한 달 전쯤 동경음악학교 전학을 위한 규칙서를 보내 달라고 부탁했었고, 연락도 없이 기숙사로 불쑥 찾아온 이인화에게 이틀 후 함께 귀국할 것을 청하고, 음악회에 함께 가자고 조르는 등 그에게 은근히 마음이 있는 여성이었다. 그런 '을나'마저 이인화가 귀국하는 사정을 들은 후 이렇게 말한다.

5) 염상섭, 『만세전』, 김경수 편, 『염상섭 중편선: 만세전』, 문학과지성사, 2005, 22면.

“그거 안되었습니다그려! 그러면서 여긴 왜 들르셨어요? 남
자란 참 무정도 하지, 어쩌면 부인이 돌아가셨는데…….”⁶⁾

말하자면 이인화는 아내의 죽음을 예상하고 귀국하면서 채 일본
을 떠나기도 전, ‘정자’, ‘P자’, 지난해 초여름 그와 어떤 일이 있었
던 ‘고베의 카페 여급’, ‘을나’ 등 네 명의 여성을 찾아다니던 셈이었다.
그 네 여성은 이인화의 아내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고, 산후 조리를
잘못해 병이 생겨 사경을 헤매던 기간, 이인화와 함께 술을 마시거
나 어울려 놀았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부산 거리를 걸으며 몰락해가는 조선 사회의 현실을 목도하고 패
배감에 젖어 있던 이인화는 “어떤 일본 국숫집 문간에서 젊은 계집
이 아침 소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별안간 들어가 보고 싶은 생
각”이 난다. 국숫집에서 일본 ‘계집애’ 세 명과 술을 마시며 그들이
부산 바닥에까지 흘러와서 술을 팔게 된 사연을 듣는다.

김천 형님 집에 들렀다가 서울로 향할 때에는 “대구에서 탄 듯싶
은 기생 같은 젊은 여자”를 발견하고는 서울역에 닿을 때까지 계속
그녀를 의식하고 관찰한다. 사경을 헤매는 아내를 찾아가는 귀국길
의 마지막 여정에서 이인화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었다.

“등 너머에 와서 누운 기생의 머리에서 가끔가끔 끼쳐오는
머릿내와 향긋한 기름내와 향긋한 분내를 코로 훌훌 맡아가며
눈을 감고 누웠었다.”

“기생이 일어나서 매무시를 만지작거리며 곧 내릴 사람같이
나를 유심히 바라보며 머뭇거리다가, 차가 떠나려고 호각을 부
는 소리가 나니까 그대로 앉아버렸다.”

“서울에서 찾아갈 길을 묻자든지 무슨 까닭이 있는 것 같아

6) 위의 책, 44면.

서 이편에서 먼저 입을 벌리고 싶었으나, 대학 제복 제모에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입을 다물어버렸다.”

“집에서 나온 큰집 종형님과 짐을 들고 나와서 인력거를 탈 때까지는, 그 기생이 출구 목책 앞에서 혼자 찢찢매는 양이 멀리 보였으나,”⁷⁾

아내를 만나기 직전 이인화의 머리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은 아내의 생사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서울 지리에 어두울 것 같은 기생에 대한 걱정이었다. 아내가 투병 중인 서울 집에 도착해서는 “별안간 대구 기생의 얼굴”이 떠올랐고, ‘지금쯤 어디를 헤매누? 말을 좀 붙여보았더라면 좋았을걸!’하며 후회도 한다. 요컨대, 이인화는 위독한 아내를 보러가는 2박 3일 간의 여정에서 일본에서 네 명, 조선에서 네 명 도합 여덟 명의 여성에게 마음을 빼앗긴 셈이었다. 이쯤 되면 이인화가 과연 위독한 아내를 만나기 위해 귀국하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운 정도다.

이처럼 다양한 여성들이 서사에 등장하는 데 반해 서사의 촉매가 되었던 ‘아내’는 이인화가 집에 돌아온 직후 딱 한 번 서사에 등장해서 단 네 문장의 대사를 던지고 서사에서 자취를 감춘다.

“중기, 중기 보셨소?”

“……난, 나는 죽는 사람이에요. 하, 하지만 저 중기만은……”

“인제는 더 살구 싶지두 않어요, 어, 어떻게 저것만은 잘 말으세요……”

“저것을 생각하니까, 하, 하루라두 더 살려는 것이지……”⁸⁾

죽음을 목전에 둔 아내에게 이인화는 남편이 아니라 돌도 채 지

7) 위의 책, 128-129면.

8) 위의 책, 132면.

나지 않은 어린 아들 중기의 아버지였던 것이다. 그 후 이인화는 “음산한 며칠”을 ‘정자’ 생각, ‘을나’ 생각에 빠져 시간을 보내며 아내가 죽기만 기다린다. 아내가 죽고 나서는 안 나오는 울음을 우는 것이 고통이었고, 아내를 매장하고 돌아올 때까지 끝내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없었다. 이인화는 아내에게는 이렇듯 매정한 남편이었지만, ‘정자’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속 깊은 남자였다. 아내의 장례 후, 학비를 대어주었으면, 함께 살았으면 하는 ‘정자’의 편지를 받은 이인화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용서해 달라는 장황한 답장과 300원의 학비를 보낸다.

이인화 부부는 남편이 열셋, 아내가 열다섯에 혼인한 조혼 부부였다. 이인화는 자신이 열다섯에 일본으로 도망하여 실상은 말뿐인 부부였다고 털어놓는다. 하지만 진정 말뿐인 아내였다면, 그녀가 “그해 가을” 아들 중기를 해산하였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던 이인화는 자신이 필요할 때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아내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왔던 셈이다. ‘아내’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인화는 『만세전』에 등장하는 다양한 위선적 인물들 가운데 가장 위선적인 인물일 수밖에 없다.⁹⁾

아내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귀국하는 길에 여덟 명의 여성을 찾거나 만나게 한 것을 보면, 염상섭은 이인화를 통해 조혼한 남성의 처지를 옹호하려 했다가보다는 그들의 위선과 허위의식을 폭로하고 비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염상섭은 ‘P자’, ‘을나’의 입을 통해 이인화의 기행(奇行)을 직접적으로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아내에 대한 냉담함과 카페여급, 기생 등 다른 여성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병치시켰다. 사랑하지도 않는 아내와 조혼하게 된 것 자체는 남편 이

9) 『만세전』에서 ‘위선’의 문제를 제기한 이수영은 이인화가 위선을 비판하는 주체 이면서 그 자신 역시 위선자일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지만, 아내에 대한 위선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이수영, 『『만세전』과 두 개의 ‘개인’』,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3호, 2003, 169-186면.

인화의 잘못이 아니지만, 죽어가는 아내에게 배우자로서의 도리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도리마저 거부한 것은 명백한 그의 허물이었다.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인간의 죽음은 그 자체로 애도 받을 권리가 있다. 더욱이 그가 거부해 마지않는 아내는 그의 아들을 낳느라 죽음에 이르렀다.

이처럼 『만세전』은 ‘아내의 죽음’이 서사의 중심에 놓이지만, 정작 ‘아내’ 자체는 서사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으며,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서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심지어 ‘아내’는 ‘처’ ‘마누라’ ‘며느리’ ‘아가’ 등 관계를 나타내는 보통명사로 불릴 뿐, 이름조차 부여되지 않는다. 이렇듯 ‘아내’가 투명인간처럼 취급되는 『만세전』의 서사적 특징은 조혼한 아내가 보조적 인물로 등장하는 한국 근대 서사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기도 하다.

이광수의 『소년의 비애』(1917)는 18세 중학생 문호와 사춘여동생 난수의 안타까운 사랑이야기다. 문호는 여러 종매들 가운데 난수를 가장 사랑한다. 문호는 난수를 공부시키고자 하지만, 그의 계부(季父)인 난수 아버지는 난수를 부호가의 자제와 결혼시키려 한다. 난수의 나이 16세, 신랑이 15세 때로 조혼이었다. 더욱이 난수의 신랑은 입을 헤벌리고 침을 흘리고 다니는 천치였다. 결혼 전날 밤 문호는 5원을 구해와 난수와 함께 서울로 도망하자고 권유하지만 난수는 문호의 제안을 거부하고 아버지가 정해준 천치 신랑과의 결혼을 선택한다.

전체 6장으로 이루어진 서사에서 5장까지가 난수에 대한 문호의 사랑 이야기이고, 마지막 6장은 그로부터 3년 후의 이야기다. 문호는 난수가 시집 간 이듬해 봄 도쿄로 유학을 갔다가 2년 후 여름 집에 돌아온다.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난 사춘 문해도 유학 생활과 귀국길을 함께한다. 고향 마을에는 난수만 없을 뿐 그들을 웃으며 맞

아주는 자매들은 그대로이다. 어머니도 닭을 잡고 떡을 만들어 문호, 문해를 먹인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문호와 문해 앞으로 두 아이가 기어간다.

모친은 두 아이를 안으면서, “이 애들이 벌써 세 살이 되었구나” 한다. 문호는 하나이 자기 아들이기요 하나이 문해의 아들인 줄은 아나, 어느 것이 자기의 아들인 줄을 몰라 우두커니 우는 아이들을 보고 앉았다가 자탄하는 모양으로 “흥, 우리도 벌써 아버질세그려. 소년의 천국은 영원히 지나갔네그려” 하고 웃으면서도 눈에는 눈물이 고인다.¹⁰⁾

『소년의 비애』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문호의 아들은 문호와 난수의 순결하고 애뜻한 사랑, 그리고 벗어나기 싫었던 문호의 소년기가 완전히 끝났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매개체이다. 이 마지막 장면에는 난수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키는 문호의 종매들, 문호가 소년기를 함께 보낸 문해, 문호의 세 살 난 아들과 문호의 어머니도 등장지만 정작 세 살 난 아들 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고 있었을 문호의 아내는 보여주지 않는다. 문호의 아내 역시 서사의 흐름 상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서사의 표면에는 등장하지 않는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다.

이광수가 같은 해 발표한 『어린 벗에게』(1917)에서도 조흔한 아내는 서사에 주요한 갈등 요인으로 자리하지만, 정작 서사의 표면에 등장하지 않는 투명인간 같은 존재이기는 마찬가지다. 임보형이 일인칭 화자 ‘나’로 등장하여 ‘사랑하는 벗’에게 보낸 네 통의 서간문으로 이루어진 『어린 벗에게』는 임보형과 김일련의 만남과 이별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된다. 와세다대학에 다니던 임보형은 “형제같이 애인같이” 사귀던 김일련의 동생 김일련을 만나 사랑에 빠진다. 임

10) 이광수, 『이광수 전집』 제8권, 삼중당, 1971, 65면.

보형은 김일련에게 격정적인 연애편지를 보내 구애하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김일련에게서 거절의 답장이 온다. 임보형이 기혼자임을 뒤늦게 알게 된 김일홍이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그게 무슨 일이요? 내가 그대를 그런 줄 알았더라면 내 누이에게 소개 아니하였을 것이요. 만일 그대가 미혼자면 나는 기뻐 그대의 원을 이루게 하겠소, 그러나 기억하시오. 형은 기혼남자인 줄을.”¹¹⁾

김일홍이 반대하고 나서기 전, 임보형도 기혼자인 자신이 김일련을 사랑하는 것이 죄일지 아닐지 고민했다. 하지만 고심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법적으로든 논리상으로든 죄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죄가 아닐까. 나는 벌써 혼인한 몸이라 다른 여자를 사랑함이 죄가 아닐까. 내 심중에서는 혹은 죄라 하고 혹은 죄가 아니라 자연이라 하나이다. 내가 혼인한 것은 내가 함이 아니오, 나는 남녀가 무엇이며 혼인이 무엇인지를 알기도 전에 부모가 임의로 계약을 맺고 사회가 그를 인식하였을 뿐이니, 이 결혼행위에는 내 자유의사는 일 분도 들지 아니한 것이요. 다만 나의 유약함을 이용하여 제삼자가 강제로 행하게 한 것이니 법률상으로 보든지 논리상으로 보든지 내가 이 행위에 대하여 아무 책임이 없을 것이라. (……) 나와 내 아내는 조금도 우리의 부부 계약의 구속을 받을 리가 없을 것이라. (……) 내가 정신적으로 다른 이성을 사랑하여 유린된 권리의 일부를 주장하고 약탈된 향락의 일부를 회복함은 당당한 오인의 권리인가 하나이다. 이 이유로 나는 그를 사랑함이요-더구나 누이와 같이 사랑함이요- 또 그에게서 그와 같은 사랑을 받으려 함이 결코 불의가 아니라고 단정하였나이다.¹²⁾

11) 위의 책, 80면.

12) 위의 책, 77면.

자의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부모의 강요에 의한 결혼이라면, 남편 이든 아내든 부부 계약의 구속을 받을 이유가 없으며, 다른 이성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닐 뿐 아니라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 오랜 사색 끝에 내린 임보형의 결론이었다. 그의 사랑관, 결혼관이 “형제같이 애인같이” 사귀던 친구 김일홍에게마저 부정당하자, 임보형은 학교도 다니지 않고, 술도 마시고, 심지어 자살까지 시도한다.

『어린 벗에게』의 서사는 그 후 임보형과 김일련이 상하이,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러시아 선박의 선상, 소백산을 넘어가는 기차간에서 재회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임보형과 김일련이 이처럼 이별과 재회를 거듭하는 이유는 임보형에게 부모의 강요로 혼인한 아내가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이처럼 임보형의 ‘아내’는 『어린 벗에게』의 서사에서 임보형과 김일련의 사랑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장애물로서 설정되지만, 서사의 표면에는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으며, 이름은 물론 연령이나 성격, 외모, 학력 등 그 어떤 정보도 드러나지 않는다.

조혼한 아내가 서사에서 투명인간 같은 존재라 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맥락은 기혼 남성이 다른 여성을 사랑하는 것이 법적, 윤리적으로 정당한가의 판단에서 아내의 처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모의 강요로 맺어진 결혼은 무효’라는 『어린 벗에게』의 임보형을 비롯한 조혼한 기혼 남성의 항변은 그 자체로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었다. 강요에 의한 행위는 형법에서도 책임 조각사유로 인정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조혼이 무효라면 조혼한 기혼 남성도 아내 아닌 다른 여성을 사랑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논리가 남성 피해자, 즉 조혼한 남편에게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었겠지만, 여성 피해자, 즉 조혼한 아내에게는 부모의 부당한 행

위에 의한 피해에다 남편의 부당한 행위에 의한 피해가 더해져 피해가 더욱 치명적으로 커지게 된다는 것이었다.

형식논리 차원에서는 조혼한 아내 역시 다른 남성을 사랑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엄격한 남성중심주의 사회였던 그 시대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려하면 그런 권리를 주장할 여성은 사실상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더욱이 여성의 사회 참여가 제한적이었던 시대였으므로 조혼한 여성에게 가정은, 설령 시집살이가 고되었다 하더라도,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터전이었다. '부모의 강요로 맺어진 사랑은 무효'라는 남편의 주장은 조혼이라는 인습의 똑 같은 피해자였던 아내에게 생존을 위한 마지막 버팀목마저 빼앗는 또 한 번의 치명적인 폭력이 될 수밖에 없었다. 강요된 결혼이 무효임을 내세워 '아내 아닌 다른 여성과 사랑할 권리'를 주장하는 기혼 남성의 눈에는 아내와 아내가 처한 현실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도 조혼한 아내는 남편에게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다.

이처럼 한국 근대 서사에서 조혼한 구여성 아내는 서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서사의 표층에서는 거의 눈에 띄지 않으며, 이름이 부여되지 않아 서사에 등장하는 잠깐 동안에도 그의 존재를 알아채기가 쉽지 않다. 남편이 조혼이라는 인습에 저항할 때 그의 처지는 조금도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 근대 서사에서 조혼한 구여성 아내는 투명인간 같은 존재인데, 이는 당대 한국 사회에서 그들의 처지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신교육을 받은 남성들은 봉건적 인습에 저항하기 위해 정작 자신의 아내에게는 남성중심주의라는 더 큰 봉건적 폭력을 가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3. 이상적 사랑이란 이름의 외도

한국 근대 서사에서 투명 인간처럼 취급되는 조혼한 아내의 대척 점에는 아내에 대한 별다른 죄책감 없이 아내 아닌 다른 여성과 이상적 사랑, 즉 자유연애를 추구하는 조혼한 남편이 위치한다. 염상섭 『삼대』의 조덕기, 『무화과』의 이원형, 이기영 『고향』의 김희준, 채만식 『과도기』의 박봉우, 임형식, 심훈 『직녀성』의 윤봉환 등은 모두 조혼한 아내 탓에 진정한 사랑을 추구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기혼 남성들이다. 이러한 인물 유형은 조혼 폐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가정에서 조혼이 근절되지 않고 성행하던 그 시대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었다.

조혼은 기아, 전란, 질병 등으로 평균 수명이 지극히 짧았던 전통 사회에서 가문을 보존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성에서 생겨난 한국의 오랜 혼인 풍속이었다. 근대 이후 조혼은 국력을 위축시키고, 인종을 타락시키는 야만적 인습으로 간주되었고, 1894년에 단행된 갑오경장에서 조혼 금지에 관한 조칙이 반포될 만큼 조혼의 폐습을 철폐하려는 정부와 민간 차원의 노력은 다각도로 전개되었다.¹³⁾ 그러나 조혼은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좀처럼 근절되지 않았다.

조혼의 연령 기준은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1894년 반포된 갑오경장 폐정개혁안에서는 20세 이하 남자, 16세 이하 여자의 혼인을 금지했다. 1907년 조칙(詔勅) 제20호로 반포된 ‘조혼 금지에 관한 건’에서는 일본 민법을 준용(遵用)해 기준 연령이 남자 17세 미만, 여자 15세 미만으로 다소 낮춰졌다. 이러한 조혼 금지 규정은 강제병합 이후에도 ‘조선민사령’(제령 제7호, 1912년)으로 이어졌다.¹⁴⁾

13) 김경일, 『근대의 가족, 근대의 결혼』, 푸른역사, 2012, 125면.

14) 위의 책, 132면.

조선민사령 반포 이후 조선총독부는 강력한 조혼 억제 수단으로 조혼자의 민적 등재를 거부했다. 1923년 제2차 조선민사령 개정(제령 제13호) 이후 친족 및 상속에 관한 사안은 조선 전래(傳來)의 관습을 따르되, 혼인 연령과 이혼 등의 사항에 관해서는 일본 민법을 의용(依用)하기로 하면서 17세 이하 남자, 15세 이하 여자의 혼인은 설령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민적에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었다.¹⁵⁾ 조혼 부부의 혼인 신고를 금지한 것은 조혼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법적·행정적 규제였지만 이처럼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조혼 풍속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조혼 건수 통계가 시작된 1920년 전체 혼인 건수는 141,122건이었고, 17세 미만의 남성 조혼자는 6.3%인 8,800여 명, 15세 미만의 여성 조혼자는 6.5%인 9,100여 명에 달했다. 전체 혼인 건수에서 조혼 건수 비중은 1920년대 남성의 경우 5.3%에서 7.8%였고, 여성의 경우 4.6%에서 6.9%에 달했다. 조혼의 폐해가 사회 문제가 된 1930년대에는 남성의 경우 6.6%에서 14.4%, 여성의 경우 5.4%에서 9.9%로 오히려 소폭 증대했다.¹⁶⁾ 조혼은 법적으로 혼인 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의 오류가 클 수밖에 없었음을 감안하면, 1920~1930년대 전체 가정의 10% 내외가 조혼 가정이었다고 보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니다.¹⁷⁾

조혼은 자식을 학교에 보낼 여유가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더욱 현저했다. 중앙고보 교사 박남규는 1922년 『동아일보』 기고문에서 “현금(現今) 고보(高普) 학생을 고사(考査)하건대 대략

15) 홍양희, 『조선총독부의 가족정책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75-78면.

16) 김경일, 앞의 책, 133-134면.

17) 김두헌의 조사에 의하면, 1921년부터 1930년까지 10년간 전체 혼인 건수에 대한 조혼 건수의 비율은 남성이 7.1%, 여성이 6.2%였다. 김두헌, 『조선의 조혼과 및 그 기원에 대한 일 고찰』, 『진단학보』 제2호, 1935, 50면.

전수(全數)의 5분의 3은 기혼자이며, 기혼자의 2분의 1은 생산(生産)한 자이라, 즉 전체의 10분의 6은 기혼한 자이며 10분의 3은 생산한 자¹⁸⁾라고 지적했다. 학교와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겠지만, 일제강점기 중등학교 학생이 결혼하거나 자식이 있다고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음은 확인할 수 있다.¹⁹⁾

조혼은 실정법상으로도 불법이었고, 당사자의 의사가 배제된 채 부모의 이기심에서 강요된 결혼이었기에 윤리적으로도 옹호되기 어려웠다. ‘조혼한 아내’, 딱 한 사람만 고려하지 않는다면, 조혼을 전면 거부하고, 그러한 구시대의 인습에 맞서 싸우는 것은 정의롭고 올바른 행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조혼한 아내를 무시, 거부, 구박, 박해하는 것은 조혼이라는 제도와 맞서 싸우는 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아무리 관념적으로 거부하더라도 실재하는 아내를 지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순수하고 이상적이었을지라도, 아내 아닌 여성과 기혼 남성의 사랑은 여전히 외도였다.

『만세전』의 이인화, 『어린 벗에게』의 임보형처럼, 한국 근대 서사에서 조혼한 기혼 남성은 아내 아닌 다른 여성과 사랑을 추구하면서도 아내에게 죄의식을 느끼거나 스스로 나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그 행위의 법적 윤리적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심지어는 그것이 봉건적 인습을 타파하기 위한 진보적이고 바람직한 행위라고 항변하기도 한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와 주장을 무리하게라도 정당화하려면 조혼한 아내는 가급적 서사의 표면에 등장하거나 서사에 개입하지 않는 편이 나왔던 것이다.

염상섭의 『삼대』에서 주인공 조덕기는 조부 조의관, 부친 조상훈에 비해서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적어도 그는 조부처럼 봉건적 관념에 사로잡힌 수전노는 아니었고, 부친처럼 미국 유학까지 다녀

18) 백남규, 『기혼자와 미혼자의 성격의 차이』, 『동아일보』 1922. 3. 20.

19) 전봉관, 『경성고민상담소』, 민음사, 2014, 17-95면. 참조.

온 크리스천이면서도 방탕한 생활로 가산을 탕진하고,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까지 위조해 가며 아들의 재산을 탐하는 속물도 아니었다.²⁰⁾ 며느리보다 다섯 살이 어린 첩을 얻어 증손자보다 한 살 많은 고명딸을 본 조부, 아들의 소학교 동창을 첩으로 삼아 딸까지 보았으나 미련 없이 내쳐버리고, 또다시 유치원 교사를 첩으로 얻은 부친에 비하자면, 필순에 대한 연정을 애써 억누르는 덕기는 새로운 시대의 도덕성을 상징하는 인물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필순에 대한 한 덕기는 한없이 따뜻하고 자상한 인물이었다.

두 청년은 문간까지 필순이를 배웅하여 내보냈다.

“공부라도 좀 시켰더라면 좋을 것을, 똑똑한데!”

하며 덕기는 진심으로 가없이 생각하고 진심으로 칭찬하였다.

“정 그렇거든 자네가 공부나 시켜 주게 그러”

“당자가 그럴 생각만 있으면 그리 어려울 것도 없지. 화개동 집에 가서 있으면 누이도 혼자 적적해 하는데 마침 좋고 아무려면 학교 뒷배야 하나 못 보아 주겠나.”

병화는 실없이 한 말인데 덕기는 진담이다.

“날 좀 그렇게 시켜 주게 그러. 나는 사내니까 안 되겠나?”

하고 병화는 비꼬아 보다가,

“돈 있는 놈이 여학교 공부시키는 것은 알 조 아닌가? 자네 두 자네 부인 하나에만은 만족을 못 하겠나 보이마는 그 애가 첫눈에 그렇게 드나? 허허허……”

하고 또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

“어디까지든지 나를 그렇게 모욕을 주어야 시원하겠나?”²¹⁾

20) 김병구는 “조의관, 조상훈, 김병화에게 결여된 것의 모순적인 조합”이 조덕기라는 인물 설정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삼대』는 조덕기로 대표되는 민족주의 지향의 지주 계층의 욕망이 투사된 것”이라 보았다. 김병구, 『염상섭 소설의 탈식민성』, 『현대소설연구』 제18호, 2003, 191면.

21) 염상섭, 『삼대』, 문학사상사, 1986, 59-60면.

필순에 대한 덕기의 감정을 조건 없는 박애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무리 부잣집 손자라 하더라도 친구 하숙집 주인 딸이 단지 똑똑하다거나 가없다고 사심 없이 공부를 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하지는 않는다. 순수한 동정에서 비롯된 후원이라면, 덕기는 그런 제안을 병화에게 먼저 했어야 했다. 필순에 대한 덕기의 감정은 병화의 시각이 옳았다. 병화는 덕기가 필순의 공부를 시켜주면, 두 사람 사이에 연애가 성립되고 필순은 이념도 동지도 포기하고 덕기의 첩 혹은 재취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병화의 예견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음을, 덕기는 이후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연이어 실행에 옮김으로써 입증했다. 교토로 돌아간 덕기는 병화에게 잘 도착했다는 짤막한 안부 엽서를 보내는데, 엽서의 말미에 필순이와 주인 내외에게 안부 물어달라는 말을 덧붙인다. 짤막한 안부 엽서에 친구 하숙집 주인 내외와 그 딸의 안부를 묻는 사람은 흔치 않다.

조부의 상을 치르고 감기에 걸려 누웠을 때, 덕기는 병화에게 넌 지시 필순이를 만나고 싶다는 눈치를 보낸다. 필순은 병화의 심부름으로 과일 바구니를 들고 덕기 집을 찾아간다. 어색한 마음에 행낭 어멈에게 과일 바구니를 전달하고 돌아가려 했을 때, 덕기는 행낭어멈에게 필순을 데리고 오라고 한다. 안방까지 필순을 불러들인 덕기는 아내를 불러 필순에게 상등(上等) 손님상에나 올리는 떡국을 대접하라고 한다. 필순이 용무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할 때는 서운한 기색을 보이며, “또 언제 오시려우? 내일 모랫새라도 틈 있거든 놀러 오시구료. 실상 한다는 이야기도 못하고 말았지마는, 이렇게 누웠으려니까 갑갑하고 심심해서……”²²⁾라 말한다. 친구 하숙집 주인 딸에게 “갑갑하고 심심하니” 놀러오라고 요구하는 사람 역시 흔치 않다.

22) 위의 책, 438면.

덕기는 필순에게 흔들리는 자기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병화와 필순의 결혼을 주선했다가 두 사람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실망감을 안긴다. “만일 그 두 사람이 기뻐서 약혼을 하였다면 자기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 일생의 처음이요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마음의 상처를 고이 덮어서, 가슴 속에 넣어두고 평생을 살아갈 용기가 있을까?…… (나도 남모를 위선자다……)”²³⁾ 덕기는 자신의 위선을 확인하고 필순에 대한 연정을 포기할 것처럼 보였지만, 『삼대』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이런 도의적 이념이 머리에 떠오르는 덕기는 필순이 모녀를 자기가 맡는 것이 당연한 의무나 책임이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었다.²⁴⁾

더 이상의 설명이 부연되지 않기 때문에 덕기가 필순이 모녀를 ‘맡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열려 있다. 필순이 모녀를 조건 없이 도와준다는 의미일 수도, 병화, 경애, 덕기 처, 덕기 모친 등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조상훈이 우국지사인 홍경애의 부친 병구완을 위해 ‘조건 없는’ 도움을 주는 데서 시작해서 홍경애를 첩으로 삼았듯, 덕기도 만세운동 때 학교 교사에서 해직된 사회주의자의 딸 필순을 ‘순수한 마음’에서 도와주더라도 종국에는 필순을 첩으로 삼을 것이라는 암시일 수도 있다. 어떤 의미이든 덕기가 필순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필순에 대한 덕기의 ‘순애보’는 그의 아내를 고려하는 순간 일종의 ‘치정극’으로 전락한다.

23) 위의 책, 449면.

24) 위의 책, 519면.

아내에게 덕기는, 그가 필순에게 그랬듯, 따뜻하거나 자상한 남자들이기는커녕 당시 조선에 흔하디흔했던 남성중심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남편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장면 1) “어서 일어나요. 어머니 오셨어요.”

아내가 건넌방 창으로 달아와서 깨우는 바람에 덕기는 그제서야 우뚝 일어나 앉았다. (...중략...)

덕기는 일어서며 하품 섞인 소리로 대답한다.

아내도 뒤따라 들어와서 부리나케 자리를 개 없는다.²⁵⁾

(장면 2) “아버님께서 (술) 잡숫는 걱정은 말고 당신이나 주의를 해요!”

시어머니와 화로를 격해서 윗목에 찌그리고 앉았던 아내가 오금을 박는다.

“잔소리 말어!”

하고 편잔을 주고 덕기는 담배를 들고 가만히 화롯불에 푹 푹 눌러 붙인다.

“너도 술 먹니?”

하며 모친은 얼마쯤 놀란 듯이 아들을 쳐다 본다.

“어제두 곤드레만드레가 되어서 오밤중에나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이 행여 무어랄까 보아 얼른 이렇게 고자질을 하고는 밥상을 번쩍 들고 나가 버렸다.²⁶⁾

(장면 3) “(아버님께서선) 그럼, 안에 어찌면 좀 안 들어오시고 그대로 가셨어요?”

아내도 섭섭한 듯이 시어머니 대신에 묻는다.

“바쁘시니까 그런 게지!”

하고 덕기는 편잔을 주었다. 덕기는 잔소리를 길게 늘어놓기가 싫어서 그런 것이지만 모친은 속으로 아들도 못마땅하였다.²⁷⁾

(장면 4) “아비에게 편지가 왔다지?”

25) 위의 책, 27-28면.

26) 위의 책, 36면.

27) 위의 책, 44면.

“예.”

“그럼 날 좀 보여야지.”

영감은 젊은애가 내외끼리 한 편지를 보자고 한다. (…중략…)

“별말 없어요. 책을 한 권 건넌방에 빠뜨린 것 하고 넥타이 두고 간 걸 보내 달라는 거예요.” (…중략…)

편지는 사실 그 말밖에 없었다. 그러나 할아버님 병환은 좀 차도가 계시냐고 한 마디 물었을 뿐인데 어린아이에게 대하여는 감기 들리지 않게 주의를 하라는 등, 잘 때에 젖을 물리지 말라는 등 부인잡지 권에서나 얻어들었는지 하는 주의를 자질구레히 쓴 것이 영감의 눈에 거슬렸다.²⁸⁾

(장면 5) 덕기의 말을 들으면, 집에서는 저녁 일곱 시에 나간 서조모가 병원에는 열 시 가까이나 왔더라 한다.

“그동안 어디를 갔었더람?”

하고 아내가 물으니까,

“넌들 아나!”

하고 덕기는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²⁹⁾

인용한 다섯 장면 외에 덕기와 아내가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은 아내가 덕기의 지시로 필순에게 떡국을 대접하는 장면, 그리고 필순이 두 번째로 덕기 집을 방문하고 돌아간 후 며느리가 시어머니로부터 덕기가 첩을 얻게 방치할 것이냐고 꾸지람을 듣는 장면 등 두 차례뿐이다. 이 두 장면을 인용하지 않은 이유는 덕기가 아내에 대한 태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세전』에서 이인화의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삼대』에서 덕기의 아내 역시 이름을 부여받지 못한다. 손주며느리, 며느리, 처, 아내, 올케, 오라범댁 등 주변 인물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보통명사로 불릴 뿐이다. ‘수원댁’, ‘매당집’과 같은 고유명사 호칭조차 부여받지 못한 주요 등장인물은

28) 위의 책, 271면.

29) 위의 책, 325면.

덕기 아내를 제외하면 덕기 모친 정도뿐이다. 그만큼 덕기 아내는 서사에서 하찮은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덕기 아내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아 존재감이 흐릿할 뿐, 덕기의 집을 배경으로 한 서사의 주요 장면에 수시로 등장한다. 시어머니만 가끔 며느리를 동정하고 격려할 뿐, 시조부, 시서조모, 시아버지 등 나머지 집안 어른은 그녀가 등장하는 장면 대부분에서 그녀를 꾸짖거나 혼계한다. 『삼대』의 첫 장면에서 조의관이 덕기가 교토로 가져가려고 삼동주 이불을 싸는 것을 보고는 “주속이란 내 나췌나 되어야 몸에 걸치는 거야. 사람이 지각머리가……”라고 꾸짖으며 쏘아본 사람이 “부엌 속에 죽치고 췌는 손주며느리”였다. 집안 어른에게 지청구를 듣는 데 이골이 난 그녀였지만, 그녀를 가장 심하게 무시하고 타박하는 인물은 다름 아닌 남편 덕기였다.

(장면 1)에서 부엌에서 일하던 아내는 시어머니가 찾아오자 건넌 방에서 늦잠 자는 남편을 깨운다. 덕기가 일어나자, 아내는 하인인 양 덕기의 이부자리를 개 엮는다. 오늘날 가정에서 성 역할과는 사뭇 다른 장면이다.

(장면 2)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다고 고자질하는 장면이다. 덕기 면전에서 “아버님께서 (술) 잡숫는 걱정은 말고 당신이나 주의를 해요!”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내는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인 여성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아내의 잔소리에 덕기는 “잔소리 말어!”라며 귀찮은 듯 핀잔을 준다. 덕기의 핀잔에는 남편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건 말건 아내가 무슨 상관인냐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필순 앞에서 덕기는 이상적 사랑을 추구하는 따듯한 남자였지만, 아내 앞에서 덕기는 전근대 한국 사회의 권위적 가장일 뿐이었다.

아내에 대한 덕기의 핀잔은 (장면 3)에도 이어진다. 시어머니가와 있는 줄 알면서 얼굴도 보지 않고 가버린 시아버지에 대해 며느

리가 야속함을 표시하는 게 크게 예의에 어긋나거나 잘못된 행동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기는 “바쁘시니까 그런 게지!”라며 아내의 의견을 묵살하고 핀잔을 준다.

(장면 5)에서 아내는 남편이 서조모의 행적이 세 시간 동안 빈다기에 “그동안 어디를 갔었더라?”이라며 말추렴에 가까운 질문을 한다. 덕기는 이번에도 “넌들 아나!”며 코웃음을 친다. 이처럼 덕기는 아내가 뭐라고 말할 때마다 핀잔과 면박을 주며 말허리를 자른다. 덕기는 아내와 말을 섞는 것 자체를 원치 않는 것이다.

(장면 4)는 조부의 몽니 덕분에 덕기가 아내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되는 장면이다. 어찌면 아내를 소 닭 보듯 하는 덕기가 교토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 오히려 뜻밖일 수 있다. 아내와 말 섞기를 싫어하는 덕기가 아내에게 대단한 내용을 썼을 리 없었다는 것쯤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편지에 아내에 대한 짧은 안부 인사 한 마디 없이 집에 놓고 간 책과 넥타이를 보내라는 사무적인 용건과 할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안부만 적어 보낸 것은 지나치게 야속해 보인다.

이처럼 아내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아내의 안부를 묻지 않았던 덕기는 병화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잊지 않고 필순의 안부를 물었다. 교토에 도착해서 병화에게 잘 도착했다는 짤막한 안부 엽서를 보내면서 말미에 필순이와 주인 내외에게 안부 물어달라고 했던 덕기는 이후 병화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낸다. 필순이 병화의 방을 청소하면서 훑쳐 읽은 덕기의 편지 중 상당한 분량이 필순에 관한 것이었다. 그 내용 역시 필순에게 끌리는 자신의 마음에 관한 변명으로 일관되었다.

“자네는 내가 왜 이처럼 필순 양에게 열심이나고 의심하는 모양이네마는 길 가는 손이 바위틈에 돌아난 가련한 꽃 한 송

이를 꺾는 것은 욕심이요 죄일지 몰라도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느끼지 말라는 것도 안 될 일이요, 흠 한 줌 복돋아 주고 가기로 그것을 뒷날에 크거든 화초분을 가지고 와서 모종 내 갈 더러운 이해타산으로만 보는 것은 사람의 자유라 하여도 너무나 몰풍취 몰인정한 일이 아닌가?……”³⁰⁾

아내에게는 권위적인 가장이었던 덕기는 이처럼 필순에게는 순수한 로맨티스트인 것처럼 가장한다. 이와 같이 덕기가 필순과 아내에게 완전히 상반된 인격을 보인 것은 필순은 사랑의 대상으로 존중했지만, 아내는 조혼이라는 봉건적 억압이 가장 직접적으로 구현된 대상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삼대』에서는 덕기 아내의 배경이나 성격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되지 않는다. 덕기의 대사와 회고 및 구절에서 단편적으로 드러날 뿐이다. 덕기는 중학교 4학년 때 장가를 들어 혼인한 이듬해 아들을 낳는다. 아들이 세 살이고 덕기가 스물세 살이므로 덕기는 열아홉에 결혼한 셈이다.³¹⁾ 덕기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경도삼고에 다닌 지 3년이 지났으므로, 아들이 태어난 직후 일본 유학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지체를 보아서 한다고 할아버지가 야단야단치고 얻어 맡긴 아내”³²⁾라 한 것으로 보아, 아내는 양반집 딸인 듯하다. 소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양반집 딸로서 교육받은 유교적 교양과 품격은 갖추고 있었다. 아내는 필순이 문제로 덕기와 모친이 갈

30) 위의 책, 229면.

31) 덕기 아내의 나이가 소설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결혼한 이듬해 출산한 것을 보면, 결혼 당시 그녀 또한 여성 조혼의 법적 기준인 15세는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남성 조혼의 법적 기준이 17세였으므로, 법적 연령 기준을 놓고 보자면, 덕기 부부는 조혼 부부가 아니다. 다만, 덕기가 중학 재학 시절에 조부에 의해 강요된 결혼이었고, 아내가 구여성이었다는 점, 유학을 핑계로 결혼 후 아내를 방치했다는 점에서 조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편의상 조혼 부부의 범주 속에 포함시킨다.

32) 『삼대』, 39면.

등을 빚을 때, “그럼 어쩍니까. 첩을 얻건 어찌건 맘대루 하라죠. 제가 압니까.” “세상에 첩 얻는 남자가 하나 둘이겠습니까마는, 첩을 두기루 제 죄 될 거야 무어 있습니까.”라고 말하는데³³⁾, 이로 볼 때, 봉건적 윤리 의식이나마 자기주장은 뚜렷한 여성이었다.

덕기는 아내가 “처음에는 좋다가 일본 갈 때쯤은 싫증이 났다” 하는데, 이는 결혼한 지 1년 남짓한 기간은 서로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들이 결혼 이듬해 출생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덕분이었을 것이다. 덕기는 자신의 복잡한 가정사를 생각하면, “사실 소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하고 구식 가정에서 자라났기에 이 속에서 배겨 있지, 요새의 신여성 같으면야 풍파가 나도 몇 번 났을지 모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생지식 없다고 싫어하던 것이 이제는 도리어 잘 되었다고 생각”³⁴⁾ 한다. 덕기는 구여성이라는 이유에서 아내를 싫어했지만, 구여성 아내의 전근대적 윤리의식에 대해서는 내심 만족하고 있었다. 아내를 아내로서 사랑하거나 대접하지 않았지만, 아내에게 부자집 안방마님으로서, 며느리로서 역할은 다할 것을 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였던 셈이다.

필순과 아내에 대한 덕기의 이중적 태도는 아내 아닌 다른 여성과 이상적 사랑, 즉 자유연애를 추구하고자 하는 기혼 남성의 욕망이 과연 근대적인 것이었는지 의문을 품게 한다. 덕기는 필순과 순결하고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었지만, 가정에서는 다른 남성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봉건적 권위를 내세우는 가부장이었다. 필순에 대한 덕기의 순수하고 애뜻한 태도는 덕기에게 번번이 무시당하고 핀잔을 듣는 아내의 관점에서는 기막힌 위선일 수밖에 없다. 그들이 부모의 강요에 의한 조혼의 피해자였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혼 남성의 자유연애가 형식적으로만 근대적일 뿐 본질에서는 전근대적

33) 위의 책, 458-459면.

34) 위의 책, 39면.

외도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4. 이혼, 혹은 ‘아내 죽이기’ 대 아내의 출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민사령에서 규정한 조혼의 기준은 17세 이하 남자, 15세 이하 여자의 혼인이었다. 남자 쪽에서는 신교육을 받은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재학생의 결혼을 금지하는 여학교의 금혼 학칙 덕분에 여자 쪽에서는 신교육을 받은 여자가 조혼의 희생자가 되기는 어려웠다. 조혼에 대한 반발은 ‘무식한’ 구여성과 결혼한 신교육을 받은 남성 쪽에서 가장 클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 사랑은 세련된 양장에 단발을 한 신여성과 공원을 산포하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문학과 예술, 철학을 논하는 것 등이었지만, ‘무식한’ 구여성 아내와는 그런 달콤한 로맨스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부모가 조혼을 강요했을 때, 각각 17세, 15세도 되지 않은 남녀가 부모의 요구를 거부하고 끝까지 저항해서 본인의 의사를 관철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았다. 따라서 조혼에 대한 책임을 부모의 강요를 끝까지 거부하지 못한 어린 남녀에게 돌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부모로부터 조혼을 요구받았을 때, 어린 남학생의 반응은 대체로, 1)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하거나, 2) 거부하고 버티다가 부모의 회유와 협박에 굴복해 마지못해 받아들이거나, 이 둘 중 하나였다. 채만식 『과도기』의 박봉우, 임형식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이기영 『고향』의 김희준이 후자에 해당한다.

『과도기』의 봉우는 9년 전 그가 열네 살, 아내가 열다섯 살 나던 해에 “부모가 시키는 대로 아무 철도 없이 장가”를 든다. 차차 나이 들어감에 따라 “그 건조하고 멧없는” 아내를 싫어하고 괘시하기 시

작한다. 그 대신 “나이도 자기보다는 훨씬 더 어리고 신지식이 넉넉하고 아양이 족족 흐르는 활발스럽고도 온순한 미인”을 항상 그리워한다.³⁵⁾

봉우가 함께 ‘이혼 기성회’를 조직하자고 권했던 경응대학 의과 학생 형식은 그가 열여섯, 아내가 열다섯 나던 해에 결혼한다. 그는 심지어 장가를 드는 게 좋았다고 기억한다. “그때 그때엔 무슨 철을 알겠나. 그저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할 따름이지…… 또 아닌 게 아니라 맘에 좋긴 하더군, 장갈 든다니까……”³⁶⁾. 형식은 결혼 생활 4년 차까지 아내와 “꿀 같이 정이 깊었지만” 일본 유학 후에는 얼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아내가 싫어졌다고 회고한다.

그에 반해 『고향』의 김희준은 보통학교를 갓 졸업한 열네 살에 열여섯 살 먹은 아내 복임³⁷⁾과 결혼했는데, “그때 어린 맘에도 그는 조혼을 반대”했다. 아들이 싫다는데도 부모가 한사코 조혼을 강요한 것은 “재래의 습관도 습관”이었지만, “그해 봄이 희준이 조모의 갑년인데, 회갑 잔치에 손부까지 겹쳐서 경사를 보자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이상”이었기 때문이다³⁸⁾. 몇 번이나 달아나고 싶었던 희준의 발걸음을 머뭇거리게 한 부모의 솔깃한 유혹은 서울로 공부시키려 보내 주겠다는 것이었다. 희준은 “그럼 장가는 갈테니 이담에 이혼을 해도 내 탓은 말어야 하우.”라고 나중에 이혼해도 탄소리 앓겠다는 부모의 약속을 받은 후 마지못해 결혼한다. 마음에 없는 결혼이었기에 결혼을 하고나서는 “잠시도 집에 있기가 싫어” 바로 서울에

35) 채만식, 『과도기』, 『채만식 전집』 제5권, 창작사, 1987, 170면.

36) 위의 책, 219면.

37) 조혼한 아내의 경우 이름이 부여되는 서사가 흔치 않은데, 『고향』에서는 아내의 이름이 부여된다. 하지만 아내의 이름이 부여된다고 해서, 다른 서사에 비해 아내에 대해 더 근대적이거나 더 진보적인 인식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단지 이름만 부여되었을 뿐이다.

38) 이기영, 『고향』, 풀빛, 1989, 175면.

올라갔고, 장가를 들었다는 것보다는 “무엇을 강제로 당한 것 같은 불만한 생각이 항상 흉증을 떠나지” 않았다. 친구들이 조혼했다고 놀릴 때면 “허구픈 웃음”을 웃으며 “가만들 두어. 그제 중학하고 바꾼 교환 조건이란다.”라고 대꾸했다.

희준은 아내를 돌보지 않는다고 “네 아내야 무슨 죄니?”라며 꾸짖는 어머니에게 “무슨 죄요? 저도 부모 잘못 만나고 시대를 잘못 탄 죄지.”라며 아내의 불행을 자신이 아닌 부모와 시대의 책임으로 돌린다. 그럼 한평생 아내를 방치할 거냐는 질문에는 “그러니까 맘대로 하란 말이지요. 그냥 있기가 싫으면 가든지 가기가 싫으면 나하는 대로 내버려두든지. 두 가지 중에서 하라는데, 나보고만 자꾸 그러면 어떡허우.”라며 선택을 아내에게 돌린다.³⁹⁾

이렇듯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결혼을 했고, 아내는 “무식하구 얼굴이 미운”⁴⁰⁾ 데다가 “서울서 매끈한 여학생들만 보다가 그 아내를 대해보면 그것은 마치 송충이 같이 흉측해”⁴¹⁾ 보였기 때문에 조혼한 남학생들은 학업을 핑계로 아내를 방치하다가 철이 들면 이혼을 요구하기 일쑤였다. 마음으로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기 전에 아내가 알아서 친정으로 돌아가 주거나, 심지어 스스로 죽어 주었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다. 『과도기』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한다.

‘……안쿠…… 아이구 이걸 어찌면 좋까…… 저년을 목을 바짝 눌러 죽여버릴까 보다…… 그리곤 감쪽같이 씻어 덮어버리면 그만이지…… 그렇지만, 그렇지만 차마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있어야지…… 차라리 병이나 들어 저질로 죽어나 버렸으면 좋으련만…… 그러면 저도 고생을 면하고 나도 그 덕분에 한평생 잘 살련만…… 그렇지만 저 따위가 곧잘 죽지도 않

39) 위의 책, 180면.

40) 『과도기』, 240면.

41) 『고향』, 176면.

아…… 눈치 먹는 아이 오래 산단 푼수로 한 오백 살이나 살
게야. 아이구, 이걸 그저…… 내가 인제 어린 놈이 이것이 무슨
죄야…… 이것이 모두 뉘 잘못이야?⁴²⁾

그의 나이 스물셋, 정이 없는 결혼 생활도 어느덧 9년 차에 접어
든 봉우는 아내가 병들어 죽어주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눈치 먹는
아이 오래 산단 푼수”로 아내가 ‘한 오백 살’ 장수할 것 같아 걱정이
였다. “아내가 자는 안방에는 발걸음도 들여놓지 아니하고 날마다
자기 모친을 조르면서 자기 아내를 그 친정으로 쫓아 보내 버리라고
성화”⁴³⁾였다. 아내에게 그러면 못 쓴다는 어머니의 꾸지람에 봉우
는 “어머니 아버지가 절 장가 일찍 들여주셨기 때문에 남의 자식(봉
우의 아내)이나 내 자식(봉우)이나 신세 망쳐 주신 줄은 모르시
우?”⁴⁴⁾라며 원인을 조흔 탓으로 돌렸다. 그밖에도 봉우는 1) 자식
이 오순도순 잘 사는 것 보려고 일찍 장가보낸 것이라면서 지금 철
없을 때 장가보낸 자식이 오순도순 잘 살고 있느냐? 2) 부모가 중
매해 주지 않으면 자식이 한평생 장가 못갈 줄 아느냐? 3) 부모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자식은 칼이나 총으로 죽이려 하더라도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야 하느냐? 하며 철없을 때 자신을 억지로 조흔
시킨 부모를 원망한다. 이처럼 부모를 원망하는 봉우의 논리에는 크
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 원망이 아내를 향할 때는 논리가
궁색해 졌다.

“내가 저한테 몹시 굴건 다른 놈한테루 시집이라두 가서 제
맘대루 살잖구 왜 육신이 멀건 게 구구하게 내집에 들어붙어
서 제 고생하구 나까지 속상하게 굴어! 못생긴 것이 못생긴 구

42) 『과도기』, 169면.

43) 위의 책, 172면.

44) 위의 책, 173면.

실을 하느라구 그러나?”⁴⁵⁾

조혼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무효이므로 조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각자 새출발하자는 봉우의 논리는 형식논리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엄격한 남성중심주의 사회였던 그 시대 사회상을 고려하면, 아내를 시집살이의 고통보다 더 심각한 생존의 위험 속으로 내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봉우는 아내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하려고 안방을 찾아가지만, “마주 앉아 말을 하려고 한즉 무어라고 말을 꺼내야 좋을지, 또 그동안 앓던 말을 섬뻍 하기가 어찌 계면쩍은 듯 하여서 여러 번 망설이다 필경 말을 하지 못하고 딴 생각만 하다 그 대로 잠이 들어” 버린다. 설령 이혼하자고 하더라도 “아내는 봉우의 말대로 하면 ‘무식장이’이었으므로 봉우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할” 것이었다.

채만식은 이혼이 조혼한 아내에게는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봉우 친구이자 ‘이혼 기성회’ 회원인 정수의 입을 통해 논박한다. 와세다대 노문학과 학생인 정수는 스물을 넘긴 지난해 일혼에 가까운 부친의 강요로 여학교 출신 아내와 결혼했다. 염세주의자인 정수는 지금 애인과 결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혼자 살기도 괴로운 세상에 아내가 있으면 더욱 거리긴다.”는 이유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혼하겠다고 베풀고 있었다. 정수는 자신의 아내는 여학교를 졸업하고 생활 능력도 있으니 이혼해도 상관없지만, “특수한 사회, 특수한 시대”에서는 사랑하지 않더라도, 심지어 다른 여성과 연애하거나 동거하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아내와 이혼하지 않는 것이 아내에게는 더 나은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만일 그 사람이 이혼을 한 뒤에 그 여자가 홀로 자기의 앞길

45) 위의 책, 174면.

을 일어나갈 능력이 있다든지, 또는 사회에서라도 그 여잘 돌
 바 줄 만한 형편이 된다면 도무지 문제가 생기질 않을 게야.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것은 그 이혼을 한 여자가 자
 기 스스로 앞길을 열어가지 못하구 한평생 홀과수로 지내지
 않으면 은근짜 집으로 팔려가거나 못된 놈의 첩이 되어 필경
 은 눈두덩 죽음을 하게 되구…… 또 우리나라 사람이 여자의
 정조에 대해서도 그런 종류의 여잘 헌계집이란 관념을 가지구
 있으니까, 설혹 그 여자가 앞길을 열어 나가려구 해두 사회에
 선 그걸 용납해 주질 않으니까.⁴⁶⁾

요컨대 ‘현대 조선’이라는 “특수한 사회, 특수한 시대”에서는 이혼
 한 여성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능력도, 사회적으로 그녀들을 지원
 해 줄 제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사회에서는 ‘헌계집’이라는
 낙인을 찍어 이혼한 여성을 차별을 하므로 아내 스스로가 이혼을 요
 구하지 않는다면, 이혼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었
 다. “공방이 들거나 정이 없는 부부가 이혼을 아니 하는 것이 노예
 생활 매음생활”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내를 그 노예생활이나 매음생활에서 해방시키면, 해방시
 키는 그날부터 그들이 “새파란 청상과부가 되기 아니면 그제는 정말
 공공의 매음장”으로 가고 말 것이라는 이유에서 현실을 무시한 이상
 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아내를 청상과부나 매음부로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정을 베풀어” 부부라는 명의를 그대로 두고, 그
 들에게 “장래의 희망”도 주고, “마음도 편히 먹게 하는 것”이 아내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이었다. 조혼한 구여성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
 는 것이 “진지한 부부의 사랑” 아니니까 “인류애로써 대접”하면 그만
 이라고 보았다⁴⁷⁾. 이혼하지 않은 채 늙어가다 보면, 남편이 젊은
 시절 방향을 끝내고 돌아올 수도 있고, 적어도 이혼녀로서 홀몸으로

46) 위의 책, 237면.

47) 위의 책, 237-238면.

남성 중심의 사회를 헤쳐 나갈 필요도 없으니 아내가 원하지 않는 한, 아내와 이혼하지 않는 것이 ‘현대 조선’이라는 “특수한 사회, 특수한 시대”에서는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 적어도 차악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었다.

부부 관계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애인과 결혼은 어떡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정수는 두 사람이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면 그만이라고 본다. 단, “민적이니 결혼식이니 그따위 것은 집어치구”, 만일 그러기가 싫다면 애인과 정을 끊으면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물론 형식으로 보아선 소위 ‘첩’이란 것”이겠지만, 두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형식에 대한 구속”까지도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정수의 주장은 구여성 아내는 “인류애로써 대접”하는 선물을 주는 대신 부부간의 사랑을 포기하게 하고, 신여성 애인에게는 사실상 결혼생활을 선물하는 대신 법적으로 첩의 지위를 감내하게 함으로써 언뜻 보기에 구여성 아내와 신여성 애인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구여성 아내와 신여성 애인은 각각 치명적인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데 반해, 남편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공평함과 거리가 먼 주장이었다. 전근대적인 축첩제에 의지한 정수의 주장에서도 기혼 남성의 자유연애가 온전히 근대적인 신문화일 수 없음이 드러난다.

정수가 ‘현대 조선’의 특수성을 강조한 것처럼, 한국 근대 서사에서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은 아내가 이혼 대신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았다. 『과도기』에서 봉우는 아내에게 몽유병이 있다는 이유에서 이혼을 요구하는데, 이에 아내는 양젓물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광수의 단편 『무정』(1910)에서 ‘한화수의 자부’⁴⁸⁾는 8년 전 열여섯 나이에 열두 살 한명준과 조혼하는데, 남

48) 이 여성이 단편 『무정』의 주인공이지만 ‘한 이십 세나 되었을 만한 젊은 부인’.

편이 첩을 두고, 무너로부터 자신의 배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가 딸이라는 점괘를 듣게 되자 음독자살한다. 전영택의 『혜선의 사』(1919)에서 혜선은 열여덟 살에 휘문의숙 학생과 결혼하는데, 결혼 후에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대신 “밤낮 안방구석에서 종노릇만 하고, 남편이라고 말도 별로 못해” 본다. 남편이 도쿄로 유학을 떠난 이후에 아버지의 권유로 스물한 살에야 여학교에 진학하는데, 늦은 나이에 시작한 공부였기에 나이 어린 여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혜선은 남편이 자신의 친정아버지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며, 도쿄에서 여학생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강에 뛰어들어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이러한 “현대 조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조혼한 남편이 “아내와 싸움을 해가면서 갖은 수단으로”⁴⁹⁾ 이혼을 요구하고, 그 아내는 “당신이 날 보구 이 자리서 당장 죽어버리라시면 두 말 앓구 죽기라두 할 것이니 제발 나가란 말만 말아 주오.”⁵⁰⁾ 하며 죽음으로써 이혼에 저항하는 것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남편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던 아내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었다. 『삼대』의 덕기는 “처음에는 좋다가 일본 갈 때쯤은 싫증이 났다” 하고, 『과도기』의 형식은 도쿄 유학 갈 때 이별하기 싫다고 “둘이서 붙들고 울기까지” 했다고 하니, 조혼한 부부였대도 ‘철없던’ 시절 사랑해서 아이가 생겼겠거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아내와 동침하지 않는다고 아버지에게 주먹으로 쥐어 박히기까지 했던⁵¹⁾ 『고향』의 희준이 아내를 임신하게 하는 과정은 쉬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한명준의 아내’, ‘모제장(某齊長)의 독녀’ 등으로 지칭될 뿐 이름이 제시되지 않는다.

49) 『고향』, 502면.

50) 『과도기』, 220면.

51) 『고향』, 177면.

사월 보름께던가. 한참 달이 밝을 무렵인데 그가 전과 같이 자기방에서 괴춤도 풀지 않고 쓰러져 자다가 놀라서 깨어보니 까 옷끈이 풀어지고 웬 사내가 옆에서 자는 것이었다.

“누구여!”

그는 하도 의외인 만큼 소리를 지르려니까 얼른 입을 틀어막는데 그는 틀림없는 남편의 손등이었다.

“아무 말도 말어……”

희준이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한편으로 고소를 금할 수 없었다.⁵²⁾

아내를 “송충이같이 흥취”하게 보고,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관계를 맺지 않다가 처음 아내와 부부 관계를 맺게 된 이유로서 “아무 말도 말어……”는 너무도 궁색해 보인다. 희준에게 그것은 그저 쓴웃음을 지을 일일 수 있겠으나, 아내에게 그것은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무섭고도 벅찬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비록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아내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맺은 관계였으므로 일종의 성폭력이었다고, 아내가 오랫동안 기다린 부부 관계였던 만큼 그 순간 남편의 마음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희망도 있었을 것이며, 그날 이후로도 희준이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기대와 희망은 이내 분노와 절망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서 희준은 “소위 이상적 가정…… 그것은 완전한 공상이 아닌가!”하며 “아내에게나 가정에 대한 그전 생각은 모두 깨끗이 단념하기 때문”에 “아내가 그때같이 밉지는 않다”⁵³⁾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음 두 장면을 보면 과연 희준이 아내를 미워하지 않았는지 의심스러워 진다.

(장면 1) 그때 슬그머니 어떤 유혹이 독사처럼 머리를 쳐들

52) 위의 책, 180면.

53) 위의 책, 180면.

었다. 음전이의 덜퍽진 엉덩이가 눈에 박힌다. 그는 야학을 가르칠 때마다 추파를 건네는 것 같았다. 어떤 때는 석류속 같은 이속을 드러내고 웃었다. 그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몸을 떨었다. 그는 자기 아내와 음전이를 대조해보았다.

‘나는 언제까지 못생긴 아내를 데리고 살 의무가 있을까?’
 별안간 그는 자기의 머리를 쥐어뜯었다.

‘아! 천치다 천치다! 천치같은 소리를 또 할테냐?’⁵⁴⁾

(장면 2) “자지 않고 왜 앉았어.”

“어련히 잘까봐 걱정이시유”

아내는 무심코 웃음섞인 목소리를 꺼냈다. 그러나 희준이는 아내의 웃는 꼴이 더욱 보기 싫었다. 웃는 입을 짓궂고싶다.

‘못난 것이 애교를 부리는 셈인가.’ (…중략…)

“조런 미련한 것! …… 그런 걸 너보고 누가 살라더냐? 진작 부자놈한테로 갈 일이지.”

“특하면 가라지 내가 이 집에 와서 얼마나 잘먹구 잘 살기에, 흑흑…… 나두 공밥 안 먹었수.”

희준이는 분한 대로 하면 아내를 당장에 박살을 내고 싶었다. 들어오나 나가나 그에게는 하나도 유쾌한 꼴을 볼 수 없다. 도처에 무지와 반동이 날뛰고 있다.

“에, 더러운 인간들! 더러운 욕심!”

야학용품의 외상값을 칠팔 원 꾸어준 것뿐인데 자기를 무슨 부처님같이 아는 것이 우습잖은가?

“예끼, 아무리 무식하고 인색하기로 너 같은 것도 사람이냐?”

희준은 참다못해 주먹으로 아내의 턱주가리를 치받쳤다. 그러나 그는 양심에 비추이는 자기 증오도 느끼었다.

“아이구 잘난 양반 불지 았우. 때리긴 왜 때려.”

“때리긴커녕 너 같은 건 죽여도 싸다. 죽여야 한다.” 이 말 속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된 것 같다. 소유욕은 아내에게만 있는 것일까?⁵⁵⁾

54) 위의 책, 38면.

55) 위의 책, 141-142면.

(장면 1)은 희준이 고향에 돌아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을 을 자책하는 장면이다. 폐인처럼 아무 소용없는 인간이 된 것 같은 가책이 들 때, 뜬금없이 음전이의 “털떡진 엉덩이”가 눈에 박힌다. 야학일망정 제자를 성적으로 욕망하면서 아내와 비교하는 것이다. 음전이를 생각하면, “못생긴 아내”를 데리고 살아야 할 자신의 의무가 더 괴로워진다.

(장면 2)는 안승학의 돈을 빌려 야학 자금으로 쓴 일을 두고 희준이 아내와 다투는 장면이다. 희준이 사실상 마지막 남은 재산인 집문서를 잡혀 빌린 돈을 야학 자금으로 썼다는 소문을 듣고, 아내가 남편에게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그다지 잘못된 행동은 아니었다. 어찌면 집안 살림을 내팽개치고 야학 일만 돌보는 희준 대신 집안 살림을 떠안은 아내로서는 당연히 확인해야 할 사안이었다. 하지만 희준은 조심스레 웃는 낯으로 묻는 아내에게 통명스럽게 짜증 섞인 대답을 이어가다가 화를 내고 욕을 하다가 급기야 주먹에 힘을 실어 아내의 턱주가리를 올려친다. 아내가 잔소리 좀 했다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모자라 “너 같은 것은 죽여도 싸다. 죽여야 한다.”며 저주를 퍼붓는다. 더욱이 희준은 아내가 뜨끔한 질문으로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전부터 “아내의 웃는 입을 짓쪼고 싶다.”는 끔직한 상상을 했다.

이 두 장면을 제외하고도, 희준이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 음전이와 갑숙(옥희)이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을 보면, 이상적 가정에 대한 공상을 깨끗이 단념했기에 “아내가 그때같이 밍지는 않았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적 가정에 대한 공상이니 기대니 하는 것과 상관없이 희준은 시종일관 아내를 무시하고 미워해 왔던 것이다.

문제는 희준이 여전히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어린아이가 새로 생긴 아내는 오히려 산티를 벗지 못하고

얼굴이 부숙부숙하다.”⁵⁶⁾에서 볼 수 있듯, 아내가 둘째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었다. 조흔한 남편들은 아내 아닌 다른 여성과 이상적 사랑을 꿈꾸면서도 사랑 없는 아내를 성적 대상으로는 삼아왔던 것이다.

김희준이 1930년대 한국 프로문학에 등장하는 긍정적 인물의 한 전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의 의견은 대체로 일치한다.⁵⁷⁾ 고학으로 도쿄 유학을 다녀온 그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고향 원터마을에서 청년회와 야학에 헌신한다. 두레를 결성해 농민을 결속시키고, 지주와 마름을 상대로 소작쟁의를 일으켜 기어이 승리를 쟁취한다. 사회 활동 면에서 김희준은 사실상 흠잡을 데 없는 인물이었다. 그렇다고 야학에서 자신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 학생 음전이를 성적으로 욕망하고, 아내에게 악담을 퍼붓고 성폭행과 가정 폭력까지 행사하는 그의 행위마저 눈감아 주어야 하는 것일까. 물론 공적 생활과 사생활이 어느 정도까지는 구분되어야 할 필요는 있고, 80여년 전 소설 속 인물에게 오늘날과 같은 엄격한 가족 윤리, 젠더 의식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희준을 한없이 긍정적 인물로만 평가하는 것은 그에게 결여된 가족 윤리와 젠더 의식마저 옹호할 우려가 있다.

구여성 본치의 관점에서 김희준은 가족의 생계는 방기한 채 다른 여성을 마음에 품고 성폭력과 가정 폭력을 일삼는 명백히 나쁜 남편이었다. 사회적으로는 모범적인 인물이었지만, 가정에서는 성폭력과 가정 폭력을 일삼는 반여성적인 인물이었던 김희준을 ‘사회 활동 면에서는 긍정적 인물이었지만, 젠더 의식면에서는 부정적 인물’이라고 평가한다면 과연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을까. 만일 그러한 평가

56) 위의 책, 139면.

57) 김정숙, 『이기영의 『고향』에 나타난 인물의 행위학적 구도』, 『어문론집』 제26호, 1998, 211면.

가 가능하다면, 사회적으로 큰 업적을 남겼지만, 성폭력 전력이 드러나 한순간에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을 잃은 인물들에 대한 평가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본처의 관점에서 『고향』을 다시 읽으면, 김희준을 더 이상 한국 프로문학을 대표하는 긍정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없게 된다.

5. 결론: 자유연애의 은폐된 폭력성

『고향』에서 갑순은 기혼자인 희준에 대한 사랑을 고민하다가, 조선에서는 남녀가 사랑할 자유뿐만 아니라 “진실한 자유” 그 자체가 없음을 깨닫고, “이 시대는 자유를 누리려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부자유와 싸워야 할 것”⁵⁸⁾이라는 인식에 이른다. 갑순과 희준이 주도해서 소작쟁의를 승리로 이끈 후 희준은 갑순에게 어려서부터 “일개의 여자로서, 이성의 대상”으로서 그녀를 사랑해왔지만, 이제부터는 “거룩한 사랑”의 ‘동무’로서 그녀를 대하겠다고 다짐한다. 이기영은 이렇듯 동지애로 승화된 사랑을 “동무와의 사랑과 정욕의 투쟁!”에서 ‘동무와의 사랑’이 승리한 것이라 묘사한다.⁵⁹⁾ 말하자면 조혼이 낳은 불행한 가정생활에서 오는 아픔을 아내 아닌 다른 여성과의 ‘이상적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고 숭고한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동지적 연대’, ‘거룩한 사랑’으로 승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외도를 미사여구로 분석했을 따름인 ‘아내 아닌 다른 여성과 이상적 사랑’을 추구하는 것으로 조혼이라는 인습에 저항하려 한 것보다는 한 걸음 더 진전된 인식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58) 『고향』, 280면.

59) 위의 책, 526면.

이러한 인식은 지향하는 가치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 벗에게』에서 임보형이 김일련에 대한 실연의 아픔을 “‘동족의 교화’에 내 몸을 바치기로 결심하여 이에 나는 새 희망과 새 정력을 얻은 것”⁶⁰⁾이라는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더욱이 남편이 다른 여성과의 사랑을 추구하건, 그 사랑을 숭고한 가치로 승화시키건 남겨진 아내의 처지는 조금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점에서 조혼의 폐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식이 되기는 어려웠다. 조혼의 폐해를 극복하자면 남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조혼의 피해자였던 구여성 아내 또한 고려한 대안을 모색했어야 했다. 희준과 갑순처럼 사랑을 동지적 연대로 승화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남겨진 아내에 대한 최소한 ‘인류애’ 차원의 배려는 있었어야 했다.

조혼한 아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내가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남편과 당당하게 이혼하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강경애의 『어머니와 딸』(1931)에서 조혼한 구여성 아내 옥이는 남편의 이혼 요구에 응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기로 다짐한다. 그것은 남성중심의 제도를 뛰어넘는 용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⁶¹⁾ 하지만 옥이에게는 매매혼의 희생자로서 타락을 길을 걸은 친정어머니의 선례가 있었고, 기생 출신으로 고학생 강수를 뒷바라지하다가 배반당한 후 아들 봉준을 키우며 경제적으로 자립한 양어머니이자 시어머니인 산호주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다. 후원자인 김영철 선생은 옥이의 남편 봉준이 평양과 일본에서 공부하는 동안 옥이를 학교에 입학시켜 공부하게 한다. 옥이는 남편의 학업을 뒷바라지하면서 스스로도 구여성의 ‘무지’와 ‘무기력’에서 벗어난 것이다. 옥이는 돌아가신 시어머니에 대한 의리, 그녀에게

60) 『어린 벗에게』, 81면.

61) 임선애, 『강경애 소설, 제도 뛰어넘기 방식-『어머니와 딸』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46호, 2005, 422-426면.

남아 있는 봉건적 윤리 의식 때문에 가정을 지키려 했을 뿐, 남편 봉준에 의지해서 미래를 설계하거나 생계를 도모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남편이 간절히 원한다면, 이혼해 주겠다는 옥이의 결단은 그 시대 구여성의 한계를 벗어나 신여성으로 다시 태어난 옥이의 예외적인 의지와 능력 덕분이었다. 옥이와 같은 해결책은 비슷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구여성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해법이 되기는 어려웠다.

사랑 없는 결혼을 해소하고 이상적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근대적 가정의 선결 요건이므로 조혼에 대한 저항과 투쟁은 일차적으로 이혼의 자유를 획득하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과도기』의 정수가 주장하듯, “이혼을 한 뒤에 그 여자가 홀로 자기의 앞길을 열어 나갈 능력이 있다든지, 또는 사회에서라도 그 여잘 돌봐 줄 만한 형편이 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여자가 자기 스스로 앞길을 열어가지 못하는” “특수한 사회, 특수한 시대”에서는 남편이 이혼을 주장하기 이전에 또 다른 조혼의 피해자인 아내의 장래와 생계를 먼저 고민했어야 했다. 그것은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구여성 아내가 생존할 수 있도록 아내를 공부시키거나 아내에게 충분한 위자료를 주는 방식이었어야 했는데, 구여성 아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강경애의 『어머니와 딸』이나 심훈의 『직녀성』 정도를 제외하면, 한국 근대 서사에서 그러한 방식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 그 대신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아내를 투명인간 취급함으로써 남성중심의 해결책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금까지 한국 근대 서사에서 조혼은 주로 남편과 그 애인의 관점에서 이해돼 왔다. 그들이 조혼의 피해자였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에 『만세전』의 이인화가 아내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귀국하면서 여덟 명의 여성에게 눈을 돌려도, 『어린 벗에게』에서 기혼자인 임보형이 김일련에게 사랑을 고백해도, 『삼대』에서 아내에게

가장의 권위를 내세웠던 조덕기가 필순 앞에서 따뜻하고 자상한 남자인 것처럼 가장을 해도, 아내의 턱을 힘껏 올려치며 화풀이를 했던 『고향』의 김희준이 갑순과의 사랑을 동지적 연대로 승화시키려 해도, 그들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려 했지, 그들의 이율배반성을 비판하고 은폐된 폭력성을 폭로하려는 시도는 게을리 했다. 한국 문학사에서 이인화, 임보형, 조덕기, 김희준 등이 얼마나 긍정적인 인물로 평가돼 왔는지 떠올려 보면, 그동안 그들의 조흔한 아내가 한국 근대 서사에서뿐만 아니라 문학사에서도 얼마나 투명인간처럼 무시되어 왔는지 이해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유연애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사랑의 근대화를 의미했다. 하지만 조흔 풍속이 견고히 유지된 상태에서 이식된 한국의 자유연애는 근대적 진보성과 전근대적 퇴행성을 동시에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전근대적 인습의 희생자였다고 하더라도 기혼 남성의 외도는 그들이 항변하는 것처럼 봉건적 인습을 타파하기 위한 진보적이고 바람직한 행위로 미화될 수는 없었다. 본처의 관점에서 한국 근대 서사를 다시 읽으면, 신여성 애인 앞에서 자상하고 사려 깊은 로맨티스트인 것처럼 행동했던 조흔한 기혼 남성들이 자신의 본처 앞에서는 그 시대 한국 사회에서 흔하디흔했던 남성중심주의에 사로잡힌 봉건적 가부장에 불과했음이 아주 또렷이 드러난다. 본처의 관점에서 조흔한 기혼 남성의 자유연애는 지향해야 할 근대적 문화이기는커녕 그 자체가 위선이고, 폭력이었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강경애, 『어머니와 딸』, 이상경 편, 『강경애 전집』, 소명출판, 1999.
- 심훈, 『직녀성』, 김종육, 박정희 편, 『심훈 전집』 제3,4권, 2016.
- 염상섭, 『만세전』, 김경수 편, 『염상섭 중편선: 만세전』, 문학과지성사, 2005.
- 염상섭, 『무화과』, 류보선 편, 『한국소설문학대계』 제6권, 1995.
- 염상섭, 『삼대』, 문학사상사, 1986.
- 이광수, 『무정』(단편), 『이광수 전집』 제1권, 삼중당, 1971.
- 이광수, 『소년의 비애』, 『이광수 전집』 제8권, 삼중당, 1971.
- 이광수, 『어린 벗에게』, 『이광수 전집』 제8권, 삼중당, 1971.
- 이기영, 『고향』, 풀빛, 1989.
- 전영택, 『혜선의 사』, 『창조』 창간호, 1919.
- 채만식, 『과도기』, 『채만식 전집』 제5권, 창작사, 1987.

2. 단행본

- 김경일, 『근대의 가족, 근대의 결혼』, 푸른역사, 2012.
- 전봉관, 『경성고민상담소』, 민음사, 2014.

3. 논문

- 김두현, 『조선의 조혼과 그 기원에 대한 일 고찰』, 『진단학보』 제2호, 1935, 46-86면.
- 김병구, 『염상섭 소설의 탈식민성』, 『현대소설연구』 제18호, 2003, 173-195면.
- 김정숙, 『이기영의 『고향』에 나타난 인물의 행위향적 구도』, 『어문론집』 제26호, 1998, 209-223면.
- 소현숙, 『강요된 ‘자유이혼’, 식민지 시기 이혼 문제와 ‘구여성’』, 『사학연구』 제104호, 2011, 123-164면.
- 이상경, 『근대소설과 구여성: 심훈의 직녀성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19호, 2001, 174-199면.

- 이수영, 「『만세전』과 두 개의 개인」,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3호, 2003, 165-191면.
- 이채원, 「젠더정치학의 관점에서 본 이기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8호, 2013, 27-54면.
- 이행미, 「이광수의 『재생』에 나타난 식민지 가족법의 모순과 이상적 가정의 모색」,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0호, 2016, 71-107면.
- 임선애, 「강경애 소설, 제도 뛰어넘기 방식 -『어머니와 딸』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46호, 2005, 406-432면.
- 홍양희, 「조선총독부의 가족정책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1-189면.

<Abstract>

A Study on Korean Modern Narrativ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egal Wives

Jun, Bong-Gwan

Not a few heroes and main characters in Korean modern novels were married men who were victims of the pre-modern custom of early marriage. They usually sought ideal love with a “new woman” who was not their wife. In doing so, they did not feel guilty to their wife, or think they were having an affair. They also actively advocated a legal and moral justification of their affairs and even protested that they were engaging in progressive and desirable acts to resist the feudal conventions. This type of characters can be classified as one of the noticeable features of Korean modern novels.

On the other hand, their wives were described as passive characters and did not appear on the surface of the narratives in many novels, despite that they played important roles in the narratives as an obstacle to their husband’s love. When their husbands agonized over the legal and moral justification for loving other women, their predicaments were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at all. In this sense, the wives who were victims of early marriage in Korean modern novels were essentially invisible.

This paper aims to reveal the significance of the legal wives who were victims of early marriage through rereading Korean modern novels such

as Yeom Sang-seop's *Mansejeon* (Before the March 1st Movement), *Samdae* (The Three Generations), Lee Gi-yeong's *Gohyang* (Hometown), and Chae Man-sik's *Gwadogi* (The Transitional Period). Previous studies have explained the transplantation of free love in colonial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flicts and struggles of values between the traditional and the modern, Eastern and Western, etc. Focusing on the specific aspect of "the old-fashioned women" wives, however, it was found that free love in colonial Korea was not just an unfamiliar aspect of modern cultures but was itself implicated in androcentrism and feudal violence.

Key words: early marriage, old-fashioned woman, legal wife, Yeom Sang-seop, Lee Gi-yeong, Chae Man-sik, *Mansejeon*, *Samdae*, *Gohyang*, *Gwadogi*

투 고 일 : 2018년 1월 20일 심 사 일 : 2018년 5월 14일-5월 28일
게재확정일 : 2018년 6월 15일 수정마감일 : 2018년 6월 26일